

세탁소용 보일러 폭발사고 발생

검사미필 기기, 위험성 드러나



지난 4월 29일 부산시 사하구에서 세탁소용 스팀보일러가 폭발해 공장이 파손되고 2명의 경상을 냈다.

사고 보일러는 하부동체부위가 파열, 보일러열수 내용물이 분출되면서 폭발 피해가 발생하고, 보일러 본체는 150m 이상 비상되어 인근에 떨어졌다.

이날 사고가난 세탁소용 스팀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58조에 의거한 검사미필기기로 드러났으며, 설치검사미필은 물론 무자격자의 관리 등 불법적인 운전중에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 작동불량으로 인한 과압사용으로 폭발한 것으로 원인이 분석되고 있다.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 가격 배럴당 32불 상회

할당관세 3%→1%, 수입부과금 14원→8원으로 인하

정부는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 가격이 배럴당 32달러를 상회함에 따라 2단계 비상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28일 "현재 유가동향을 지켜보면서 단계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대책시행을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할당관세를 3%에서 1%로 인하하고,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인하하는 등의 비상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6일 새롭게 확정한 '고유가 상황별 대응방안'에 따르면 두바이유 기준 10일 이동평균 가격이 배럴당 32달러미만인 경우 별도 가격안정책없이 시장가격에 흡수토록 하고, 32달러를 넘을 경우 할당관세와 내국세를 인하하도록 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고 있는 두바이유의 10일 이동평균 가격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23일 배럴당 32.02달러로 32달러를 넘어서 후 24일 32.11달러,

27일 32.13달러, 28일 32.17달러를 기록 중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난 6일 작년 이라크전을 대비해 수립한 '석유위기 대응계획'을 보완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르면 산자부는 석유수급과 가격을 함께 고려해 시장요인에 의해 국제유가만 상승하는 경우와 석유수급차질 발생과 국제유가상승이 병행되는 경우로 구분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석유공급측면의 위기징후 없이 국제유가만 상승하는 경우에는 차량10부제 등 강제적인 에너지 수요억제조치 없이 석유수입부과금·관세·내국세 인하 등 가격안정대책 위주로 대응키로 했다. 두바이유 기준 10일 이동평균 가격이 30달러를 넘어서면 정부차원의 모니터링을 가동하면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하고, 32달러를 넘어서면 석유수입부과금·관세·내국세 인하 등 가격안정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제유가가 35달러를 상회할 경우에는 내국세 인하·유가완충자금 집행 등 가격안정화 조치와 더불어 상승분 일부를 시장가격에 반영하게 된다.

<이데일리>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됐던 영광원전 5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가 28일 오후 10시를 기해 발전을 재개했다. 영광원자력본부는 "사고 후 방사능 오염 재발 방지 대책 등 정상화 조치를 완료하고 연료 교체를 비롯한 발전설비 전반에 대한 점검·정비 및 설비 개선에 나서 원자로 설비 운영 및 성능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영광원전 5호기는 출력 증발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1일 100% 출력에 이른다. 5호기는 지난해 12월 방사능이 함유된 냉각재가 유출돼 가동 정지와 함께 계획 예방정비에 들어갔고 최근 해외 용역기관 조사 결과 관련 사고가 주변 환경 및 원전 안전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고유가 이파 석유수입사태 폐업 잇따라

고유가 사태의 여파로 석유수입사태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내 최대 석유수입사인 페타코의 부도를 시작으로 정부의 원유관세 차등화와 고유가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민간비축물량을 확보하

영광원전 5호기 발전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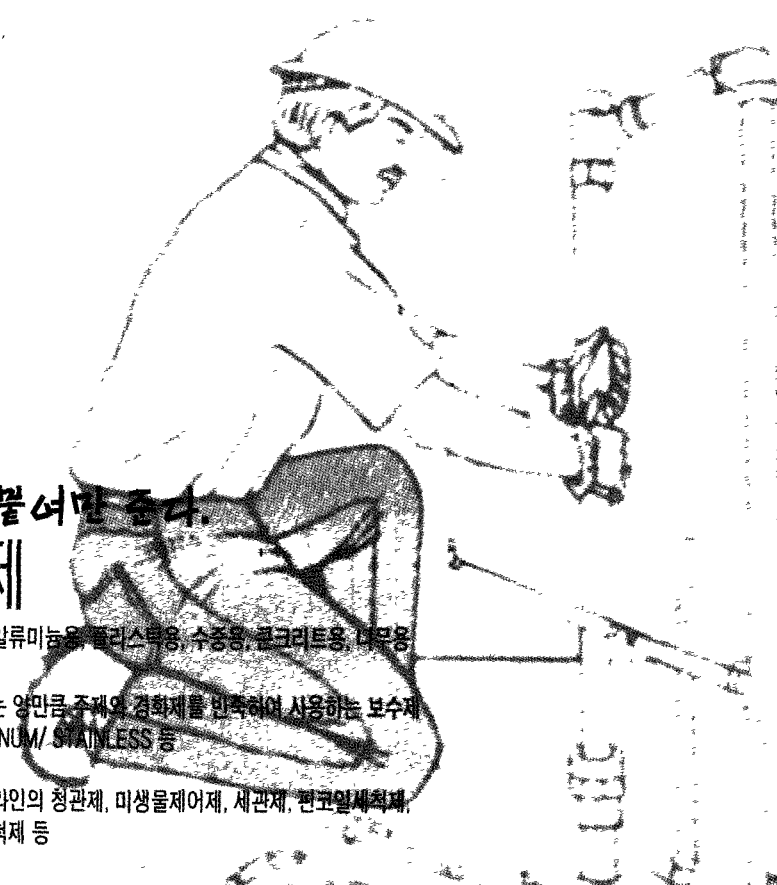
사고 있는 배관! 손쉽게 해결한다.

손으로 반죽하여 붙여만 족다. 배관보수 접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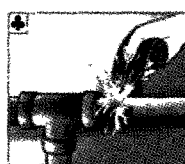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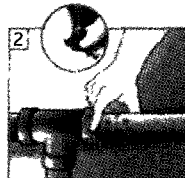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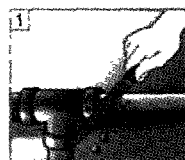
> 강관용, 동관용, 고온용, 다목적용, 알루미늄용, 플라스틱용, 수중용, 클리프용, 나무용

이액형 보수제 > 주격으로 원하는 양만큼 주격의 경화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보수제 STEEL/ALUMINUM/STAINLESS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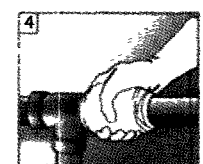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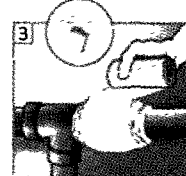
수처리 케미칼 > 보일러 및 냉각라인의 청관제, 미생물제어제, 세관제, 편코일제척제, 바닥 및 설비세척제 등



간편하게 감사서 보수한다. 배관보수 테이프 - PRES



- 사용방법**
1. 벨트를 잠그고 오염물질을 제거 후 샌드페이퍼나 브러쉬 등으로 거칠기 작업을 한다.
 2. 압력을 제거할수 있으면 스틱형 보수제를 부착하여 누설부위를 막는다.
 - ※ 압력이 제거가 안되면 생고무 롤을 누설지점에 감아준다.
 3. 보수테이프를 물에 50초간 활성화 시킨후 감아준다.
 4. 다 감은 후 감은 방향으로 부드럽게 맞사지 작업을 해준다.
 - ※ 맞사지 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장갑을 벗고 손에 물을 묻혀 작업하면 작업이 더욱 용이하다.





지 못한 수입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석유사업법은 석유수입사의 경우 수입 또는 내수판매물량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재고를 의무적으로 비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가격이 폭등하면서 의무비축물량을 채우지 못하는 수입사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병커-C유 수입업체인 '휴론'이 자금난으로 의무비축 물량을 채우지 못해 오는 5월부터 영업정지되는 것을 비롯, 역시 의무비축 물량을 채우지 못한 '오일코리아'도 지난달 말 산업자원부에 등록말소를 신청했다.

또 중견 석유수입사인 K사도 고유가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재산성 악화를 견디지 못해 조만간 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규모가 작은 2-3개 업체도 폐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사들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원유와 석유완제품의 관세차를 2%에서 4%로 늘린 뒤 가격경쟁력 악화로 고전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고유가 사태의 여파로 국제 석유제품가격의 폭등세가 지속되자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페타코 부도 이후 석유수입사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국내에는 40여개 수입사가 등록돼 있으나 고유가 사태가 본격화된 작년 연말 이후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4월말 현재 실제 석유수입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10여개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97년 석유시장이 자유화된 이후 우후죽순처럼 증가하면서 한때 국내 석유시장 점유율의 1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던 석유수입사들이 고유가 사태 장기화 등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화도에 풍력발전시설 건립 추진

강화도에 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풍력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 강화군 여차리 갯벌과 초지리 방조제, 석모도 향포 저수지 등 3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들 3개 지역은 연평균 풍속(m/sec)과 풍력 에너지 밀도(W/m²) 등 풍력자원과 입지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곳 풍력발전시설은 바람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전력이 MW급이 아닌 kW급에 그쳐 경제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대체 에너지 발굴 및 부존자원 개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강화지역 풍력자원 계속조사와 함께 경제성 및 부수효과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내년에 발전 규모와 건립지를 최종 확정지를 방침이다.

<연합뉴스>

부시 "脫黃 디젤유 입법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4일 환경오염 대책으로 디젤유에서 황(黃)을 제거토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발전소의 수은 배출을 규제하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지구의 날(22일)과 관련, "디젤유에서 황 제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성안 단계"라며 "지난 70년대 휘발유에서 납을 제거토록 한 조치가 공기오염을 줄인 것처럼 탈황(脫黃) 디젤유는 디젤유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트랙터 등의 유해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사상 처음으로 발전설비의 수은 배출도 규제할 방침"이라며 "새 규제 조치가 시행되면 수은 배출이 약 70%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의 환경보전, 보호 대책과 성과를 주장했으나, 대응 연설에 나선 민주당 마크 어달 하원의원(콜로라도)은 "부시 행정부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팔아버렸다"고 반박함으로써 전날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적인 존 케리 상원의원간 환경정책 공방을 이어 갔다.

<연합뉴스>

5~6월 천연가스 요금 동결될 듯

유가 급등으로 약 6% 인상요인 발생 불구

최근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5~6월 반영될 천연가스 적용원료비에 약 6%(20원/m³)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따라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3%의 변동폭이 발생했을 경우 요금을 조정토록하고 있지만 지난 3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상반 기준 공공요금을 동결키로 한데 따라 5~6월 원료비 조정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 평균 요금은 현행 321.56/m³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적용

원료비 인상요인을 산자부에 보고하고 요금을 인상에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산업자원부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스신문>

원유 소비증가량 60% ... 미국·아시아 차지

오는 2025년까지 세계 에너지소비자가 약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세계 에너지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개도국은 약 91%, 선진국은 33%, 동유럽과 구소련 등 체제전환국은 약 42%의 에너지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인도와 같은 아시아 개도국은 경제성장이 견실하게 유지돼 세계 에너지소비 증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선진국은 낮은 인구 증가율, 에너지효율 향상,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감소로 에너지소비자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체제 전환국도 낮은 인구 증가율, 노후설비 교체에 따른 에너지효율 향상 등으로 개도국보다는 에너지수요 증가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유가는 올해 이후로 배럴당 25달러까지 하락한 후 2025년에는 배럴당 51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석유소비도 2001년 77mb/d에서 2025년에는 121mb/d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소비 증가의 대부분인 60%를 미국과 아시아 개도국이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광고문의 T.2679-6343

에너지설비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국내의 에너지설비 기술동향 및 정보를 모두 담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미국사언과영 캐논코리아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에너지총설**이 있습니다.

- 매년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할 때마다 고민하신 분
- 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
-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
- 에너지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원, 학생, 공학 엔지니어들
-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 현장 에너지관리자 여러분들!
- 기계설계사무소 여러분들!

그동안 참고서 한 권 없어 고민 많으셨죠? 에너지 경제, 정책, 제도, 기술, 관리를 총망라한 **에너지총설**이 해결해 드립니다.

Energy Total Solutions

차재호 박사외 13명의 박사 집필!

강력추천

한국과학기술원(포항공과대 교수) 에너지정책 연구실 이사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사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 에너지총설은 에너지, 환경, 정책, 제도, 기술, 관리를 총망라한 에너지총설 1,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은 100페이지, 2권은 100페이지) (1권은 100페이지, 2권은 100페이지)

에너지총설 1권 100페이지, 2권 100페이지 (총 200페이지) (총 200페이지)

에너지총설 1권 100페이지, 2권 100페이지 (총 200페이지) (총 200페이지)

에너지총설 1권 100페이지, 2권 100페이지 (총 200페이지) (총 200페이지)